



기획시리즈

# 조경수목 산책 (XI)

— 해 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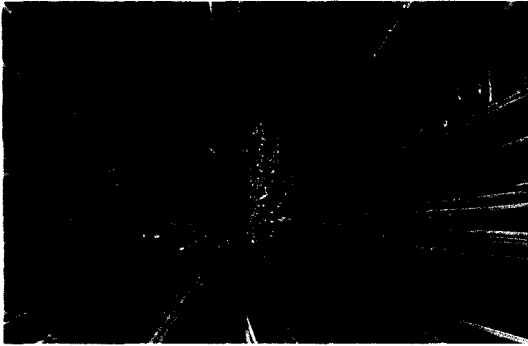


임경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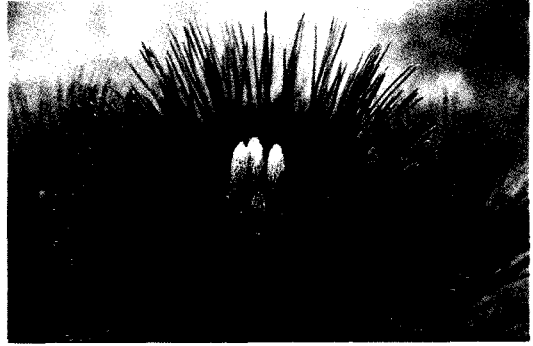
아카시아 연구회장



▶ 해송의 장자(長者), 제주시,  
1990. 9. 26.



▲소나무의 붉은색 동아, 광릉,  
1992. 4. 1.



▲해송의 흰색동아, 강릉,  
1988. 10. 8.

## 해송과 소나무

우리 나라에 자생하는 이엽송에는 소나무, 해송이 있고 오엽송에는 잣나무, 섬잣나무, 눈잣나무가 있다. 자생하는 삼엽송은 없다. 백송은 삼엽송이나 도입된 것이다.

해송은 그것이 바닷가에 따라서 자라기 때문에 얻은 이름이고 통상적으로 쓰여지고 있다.

간혹 곰솔이라고 부르는 일이 있으나 이것은 보편성이 없는 지방명으로 보아야 하고 우리말 사전에도 그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잎이 소나무보다 억센 까닭에 그러한 착상이 있게 된 듯하다. 소나무를 적송(赤松)이라 하고 해송을 흑송(黑松)으로 말하는 일도 흔하다. 소나무는 수피의 색깔이 더 붉은 편이고 해송은 검은 까닭에 이와 같이 부른다. 이것 또한 좋은 명칭이다. 일본 사람들은 적송(아카마쓰), 흑송(구로마쓰)으로 통칭하고 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터이지만 소나무의 끝눈

색깔은 붉고 해송은 희다. 그래서 두 수종은 쉽게 구별될 수 있다.

## 해송의 분포

해송은 주로 우리 나라와 일본의 해안가에 분포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포양식을 우리는 흔히 선상분포(線狀分布)라 하고, 소나무처럼 넓은 면적 위에 나는 것을 면상(面狀)분포라 말한다. 선상분포를 하면 나무와 나무 사이에 혼인이 일어나기 어려워 소위 지방적 분화(地方的分化)가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령 우리 나라 서해안에 나는 해송이 동해안 울진쪽에 서 있는 해송과 통혼을 해서 서로 피를 섞자면 남해안을 따라 긴긴 여행을 해야 하는데 그 여행은 거의 불가능하리만큼 많은 장벽이 그 사이에 나타나고 있다. 농경을 하는 넓은 들판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의 주거지가 있고 높은 산악이 있어서 해송이 그 산을 넘기 어려울 때가 있고 또 바람이 남쪽에서 북쪽으

로 불어오기 때문에 꽃가루나 종자가 위도방향으로 나아가기 어렵다. 통혼이라 한 것은 꽃가루를 주고받아 그 꽃가루 안의 유전자를 받아들인다는 말인데 꽃가루의 이동이 문제가 된다. 물론 꽃가루는 바람을 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먼 곳으로 이동해 갈 수 있으나 적은 수의 꽃가루로서는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 상당한 수의 꽃가루가 옮겨가야 그들의 유전자를 상대방에 전달할 수 있다.

이처럼 선상분포하는 것은 한 지역의 해송 숲의 특성을 점점 개성 있는 것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고 떨어져 있는 숲과 그 유전적 소질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 지구상 출현의 역사

소나무류(pinus)는 나자식물로서 지금으로부터 약 1억 4천만년 전인 중생대 백악기(白亞紀)때부터 나타났다고 하며 현재 소나무

속에는 약 90여 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중 해송, 소나무와 같이 한 곳에 두 개의 침엽이 나는 소위 이엽송 계통이 지구상에 나타난 연대는 비교적 새롭다. 해송도 다분히 그럴 것으로 생각되는데 소나무가 나타난 것은 신생대 제3기 선신세(鮮新世, pliocene)이고 지금으로부터 7백만 년쯤 된다. 그 뒤 인류의 활동이 왕성해짐에 따라 소나무도 그 수가 불어나고 역사시대에 들어가자 그 증가는 빨라졌다. 선신세라 하면 삼림이 무척 감소하고 초원(풀밭)이 확대되어 나갈 때인데 그러한 상황이 또한 소나무의 생존과 세력확충을 돕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연화가 발생하면 초원은 쉽게 타서 넓은 공지를 만들어 내고 그러한 곳에 소나무류가 쉽게 침입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해송과 일본의 해송은 같은 종으로 되어 있다. 말하자면 공통종이다. 소나무도 공통종이다. 그 외에도 많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지난날 육지로 연결이 된 적이 있어서 공통종의 수가 많은 것으로 짐작된다.

### 우리 나라와 일본의 해송

나는 일본 국민학교(소학교) 6학년용 국어 교과서 상(上)에 육지 연속에 대한 항목이 있어서 흥미 있게 읽었다. 좀 지루할지 모르나 또 그것쯤은 이미 알고 있다

고 할지 모르나 한 번 훑어보는 것도 좋을 성싶어서 군데군데를 추려본다.

아주 옛날 일본에 벼재배 기술이 대륙지방에서 전달되기 전 그들은 열매, 새, 물고기, 조개를 채집해서 먹고 살았다. 그중 조개는 바닷가에서 가장 구하기 쉬웠고 영양가 있는 식량이 될 수 있었다. 먹고 난 조개 껍질은 한 곳에 모여서 소위 조개더미, 패총(貝塚)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 조개더미가 해안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내륙지방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이 사실은 그 당시 그곳이 바로 해안선이었음을 말해준다. 그러면 당시

바다였던 곳이 왜 지금은 육지로 되었는가. 그 이유의 하나는 바다의 높이가 낮아진데 있다. 바다의 물이 빙하로 되어 저장되었기에 바다의 수면은 낮아지고 해안선이 바다 쪽으로 옮겨갔다. 만일 지구상의 기온이 지금보다 더 따뜻하게 되면 빙하의 얼음은 조금씩 녹아서 결국 바다 수면의 높이는 높아질 것이다. 조사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6천년 전에는 바다높이가 지금보다 매우 높았다. 그때 기온이 높았다는 사실은 바다속 생물과 산호의 자람 등으로 극명하게 입증되고 있다. 산호는 따뜻한 바다 속에 살고 있는 생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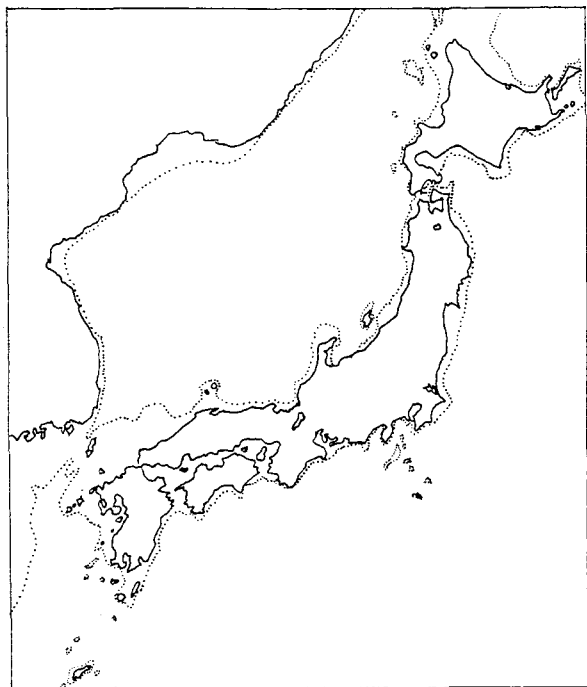


그림. 2만년전의 해안선(점선)  
현재의 해안선(실선)

지난날 빙하시대는 몇 번인가 있었고 가령 지금으로부터 약 2만년 전에는 가장 새로운 빙하시대가 있었다. 그때의 바다 면은 지금보다 훨씬 낮은 곳에 있었고 바다 속의 지형으로서 그것을 입증할 수도 있다. 즉 2만년전의 지형(산맥과 하천의 흐름 등)이 지금은 바다 속에 잠겨있고 그것이 현재의 육지와 잘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지형은 현재 바다 속 깊이 100미터까지도 추적할 수 있다. 이것은 2만년전의 해면은 지금보다 100미터쯤 낮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때 우리 나라 반도부와 일본 열도는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다. 동해는 하나의 큰 내륙호(內陸湖)의 모습을 띄고 있었다. 2만년이란 시간은 45억 년이란 지구의 역사에 견준다면 극히 짧은 시간이다. 그러한 짧은 시간동안에도 지구상의 기후는 변화를 되풀이해서 바다와 육지의 모습이 달라지고 생물의 분포에도 영향을 주어 왔다.

육지가 연결되어 있을 때에는 소나무와 해송의 숲은 길게 연결되어 있었고 대륙지방으로부터 노루라든가 코끼리 같은 동물도 동쪽으로 이동해 갔다.

우리는 오늘날의 식물의 분포를 생각하는 마당에 이와 같은 육지의 변형 그리고 기후의 변화까지 더듬어 보는 지혜가 요구된다. 해송의 분포는 그때의 육지연속의 양상을 말해 주는 증거물일지

도 모른다.

## 미라리의 해송

소나무는 우리 나라에서는 뛰어난 조경수목으로 인정되고 있다. 백목의 왕(百木之長)으로 추어올린 데에는 그 쓰임새에도 있지만 풍경수로서 인간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일본 사람들은 일본국토의 자연풍경을 백사청송(白砂靑松)으로 요약하고 있는데 이때의 청송이 소나무나 해송이냐 하는 문제도 있다. 흰 모래밭은 해안의 풍치이고 해안에는 해송이 더 생태적으로 어울린다면 모래밭과 해송의 조화를 내세울 수 있다. 사실 일본사람들은 해송의 아름다움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우리나라 남쪽 해안의 해송숲도 흰 모래밭과 어

울려 절경을 이루는 일이 있다. 그러나 전남 소안도(所安島)의 미라리(美羅里) 해송 숲이나 보길도 예송리의 해송 숲 등은 그 앞에 등글게 마모된 자갈이 깔려서 기관을 이룬다. 해송의 백사청송은 강원도 강릉 해안에서 더 잘 바라볼 수 있다.

앞에 말한 미라리는 상록수림으로 가치가 인정되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나 바닷가를 따라서는 해송이 우월해서 자라고 있다. 해송 뒤쪽에는 생달나무, 잣밤나무류, 광나무, 후박나무, 보리밥나무, 사스래피나무 등이 나서 상록수종의 혼효림을 만들고 있다. 내가 이곳 숲을 찾은 것은 1990년 12월 21일이었는데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아침 목욕으로 땀을 흘리고 소안도로 갔던 것이다. 소안도의 인구는 6천명을 좀 넘고, 중고등학교가 있다.



▲백사청송, 전남고흥군 나로도 해송림, 1982. 9. 5.

## 예송리의 해송

다음해 6월 7일 금요일 아침 나는 전북 이리시(主: 현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집을 떠나 보길도로 향했다.

경로를 보면 광주, 나주, 해남을 거쳐 완도로 가서 배로 보길도로 갔다. 완도에서 보길도까지의 뱃길은 1시간 50분을 소요했다. 선착장 가까운 곳에 고산 운선도 선생의 유적이 많아 그것을 보고 다시 차를 몰아서 예송리로 가서 민박을 하기로 했다. 나루터에는 조개더미가 있었고 옛날 사람들이 조개를 식량으로 해서 살아간 자취를 알 수 있었다. 나루터에서 예송리 사이에는 2차선 도로가 개설되고 포장되어 기분 좋게 접근할 수 있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부터 신기한 이야기를 들었다. 보길도(甫吉島)의 보길은 『十用十一口』로 파자(破字)할 수 있는데 그 뜻은 이 섬에 명당자리 11개가 있고 그 중 10개는 이미 사용되었고 나머지 1개도 이미 묘 쓸 사람이 정해졌다는 풀이이다. 그럴싸한 이야기이다.

예송리 상록수림은 길이 약 740m, 넓이 약 30m에 이르는 숲인데 이 숲은 약 300년 전 방풍림의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전해진다. 녹나무, 후박나무, 가시나무류, 송악 등의 상록 활엽수종이 많으나 해안을 따라 해송이 줄로 서서 발달하고 있다.



▲신목으로 되어 있는 해송, 보길도 예송리, 1991. 6. 7.

그 오래되고 굵은 나무들이 많은 가운데 큰 해송 한 그루를 골라 당목(堂木, 서낭당나무)으로 하고 있었다. 나무 줄기가 비스듬히 누워 있어서 콘크리트 기둥으로 떠받쳐 보호하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해마다 음력 4월 12일에 이 나무 아래에서 해신제(海神祭)를 올린다는 것이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고 바다 속에서 생활자원을 캐내서 생계를 꾸려 가는 그곳 사람들은 무한한 힘을 내장하고 때로는 순하게 때로는 사납게 닥쳐드는 바다의 신비에 굴복하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경악하기도 하면서 자연을 숭배함으로써 서로의 관계가 순조롭게 되어 나가는 것을 믿었다. 이러한 자연숭배의 습속은 이웃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있

다.

이 마을에 살다가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은 저승에서 세상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동네 사람들은 그러한 고통을 위해서 젓상을 차려 명복을 빌어주는 습속을 가지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에는 공자교 즉 유교의 전통을 다져가면서 지내 온 민족들이 살아오고 있다고 한다. 유교의 사상체계는 다분히 무축(巫祝) 즉 샤아먼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 샤아먼(하늘의 신이나 영혼을 지상의 인간과 연결시켜 주는 기도하는 사람)은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어느 곳이나 있었고 그것이 이상한 존재이진 않았다. 샤아먼은 공자 시대부터 있었고 유(儒)라는 것은 원래 샤아먼을 뜻하는 것이라 한다. 유

교에 있어서는 선조에 대한 제례(祭禮)를 근본의 하나로 하고 있는데 사머니즘은 부모에 대한 효행에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예송리 사람들의 신령숭배와 관련해서 생각해 본 것이다.

해송이 제사를 올리는 곳으로 택해진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해(海)자가 통하는 뜻을 간직하기 때문이 아닌지도 생각해 본다. 예송리 사람들은 이 숲을 장림(長林)으로 부르고 있었는데 그것은 이 숲이 해안따라 길게 뻗어있기 때문이다.

## 제주 아라동의 해송

자연신의 은총을 기원하는 일은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해송에 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 나무는 수령 5백년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는 오래된 나무인데 수고가 28m에 이르며 천연기념물 160호로 지정되고 있다. 이 나무가 서 있는 곳을 산천단(山川壇)으로 말하는데 옛적부터 제주목사가 천제를 올리는 곳이다. 원래는 한라산 정상 백록담에서 제를 올려야 하나 길이 멀고 험준하며 기상상태의 변화가 심해서 이곳 해송 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나는 몇 번인가 이 나무를 찾은 일이 있는데 그 때마다 당당한 위용의 이 나무에서 어떤 신비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줄기가 상당히 비스듬히 누워있는 편이라 모진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다. 지주를 해서 그 무게를 감당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한다.

이 나무는 경륜으로 보아 우리나라 모든 해송의 우두머리의 자리에 있다. 이 나무 주변 가까운 곳에 큰 해송이 몇 그루 더 있다. 지난 날에는 이곳이 해송의 숲이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 울산 동백섬의 해송

동해안 남쪽 울산 앞 바다에 작은 섬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눈

섬, 또는 동백섬이다. 섬의 모양이 사람의 눈에 닮았다고 해서 눈섬(目島)이고 동백나무가 많아 그 꽃이 아름다워서 동백섬으로도 말한다. 1985년 6월 이 섬을 찾았을 때 섬에는 해송이 많았다. 눈섬은 본토 육지부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고 배로 15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다. 이 섬은 동해안에서 유일하게 상록활엽수림이 발달한 곳으로 학술적 가치가 대단히 높은 곳이다. 지난날에는 이 섬이 놀이터로 이용되어 귀중한 나무들이 훼손된 바 있다. 그러한



▶ 검은색 수피를 가진 해송, 울산 눈섬(目島), 1985. 6. 3.

훼손이 해송의 세력을 키워나간 것으로 생각된다. 바다 바람을 즐기는 해송이 인간 간섭을 도움으로 힘을 키우게 된 것으로 안다.

## 다과성 해송

소나무에 여러 품종 또는 변종이 알려져 있듯이 해송에서도 그러한 변종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소나무에 대한 연구조사는 많이 되었으나 해송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것 같고 또 품종의 분화도 소나무만 못한 것 같다. 즉 변이를 잘 만들어내지 않고 그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이어 나가는 수종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해송에는 다과성(多果性)의 개체가 더러 보인다. 이것은 나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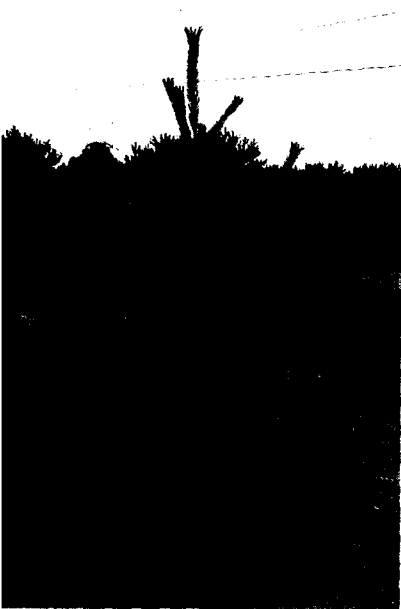
어린데도 솔방울이 유난히 많이 맺는 나무로서 한 가지 변이라고 짐작된다. 이러한 형질은 그 나름대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고 조경적으로 개발되는 것도 좋다고 본다. 많은 솔방울이 달리는 현상도 하나의 특이한 아름다움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 1983년 한 여름 충남 서산 해안 모래밭에서 발견한 것을 여기에 사진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성이 나무의 일생동안 한 때에 한해서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전 생애를 통해서 계속되는 것인지는 더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 해송의 연리(連理)

연리라 하는 것은 나무끼리 조

직으로써 서로 연결되는 현상을 말한다. 나무와 나무끼리 가지나 줄기, 또는 뿌리가 가까이에서 접촉해 있다가 보면 그것이 조직적으로 접착이 되어 두 나무가 한 몸으로 되는 일이 흔히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연리이다.

나무의 뿌리는 땅 속에서 서로 접촉이 되고 조직 유합이 일어나는 일이 흔하다. 땅 속의 현상이기에 우리의 눈에 쉽게 띄지 않을 따름이다. 그러나 지상부의 가지가 서로 연결되는 일은 매우 드물고 줄기가 서로 붙는 일은 간혹 있을 수 있다. 집 안에서 있는 나무가 연리 현상을 보이면 그것은 그 집안의 길조로서 행복의 상징으로 본다. 두 나무가 서로 붙는다는 것은 부부의 극진한 사랑



▲多果性의 해송, 서산해안, 1983. 7. 30.



▲연리된 해송의 노거목, 전북 고창 동호해수욕장, 1992. 9. 25.

의 밀착으로 보는 것이다. 전하는 말에 하늘에서는 비익조(比翼鳥)가 되고 땅에서는 연리지(連理枝)가 되고 싶다는 사랑의 토로가 있다. 비익조라는 새는 암컷은 왼쪽 날개만 수컷은 오른쪽 날개만 가졌기에 두 마리가 서로 함께 해야 하늘을 날 수 있다. 지극한 부부의 사랑의 밀착으로 살아가는 새이다.

가지가 서로 붙어있는 상황도 비슷하게 풀이될 수 있다. 사랑하는 남녀라면 비익연리(比翼連理)처럼 몸의 일부가 서로 붙어 있어야 좋다는 논리는 아무런 저항없이 모두들에게 자연스럽게 수용될 수 있다.

나는 해송의 굉장한 연리현상을 전북 고창군 동호해수욕장에서 볼 수 있었다. 이것을 사진으로 이곳에 보이지만 무려 다섯 나무가 수평적으로 발달한 가지(뿌리?)로서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다섯 나무는 생리적으로 보아 한

나무인 셈이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생겨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기적같은 사실이다. 구태여 풀이를 해 본다면 지난날 땅 속 뿌리가 서로 연결되었고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흙이 유실되어 뿌리가 노출되어 줄기 모양, 가지 모양으로 되어 버린 것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섯 나무가 연리로 되었다는 것은 신기한 현상이다.

이들 나무는 마땅히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소중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천연기념물 지정의 조건에는 이러한 신기한 현상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보배와 같은 생물 현상이고 그 주인공이 해송인 것이다.

### 해송과 도래솔(丸松)

앞에 말한 해송의 연리를 보고 난 뒤 무언인가 신비스러운 생명들의 불가사의한 연출에 자못 깊

은 사색을 던지면서 그곳을 떠났다. 고창군은 해안에 위치해 있어서 많은 해송을 볼 수 있었다. 그 중 눈에 띈 것은 묘지 주변에 돌아가면서 심어놓은 도래솔이었다. 내륙지방이면 의례히 소나무를 심어 도래솔로 하지만 해안지대에 있어서는 해송을 도래솔로 심고 있다. 도래솔은 묘 안에 잠자고 있는 영혼을 달래서 안정시키는 구실을 하는데 나는 차에서 내려서 묘지 주변을 살폈고 해송 도래솔을 사진에 담아 보았다. 소나무가 자라기 어려운 곳에 있어서는 해송을 심어 같은 효과를 올릴 수 있다는 사람들의 믿음이 있는 것은 이엽송이란 공통성 때문이었을 것이다. 오염송의 하나인 잣나무를 심는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였다.

칠혹의 밤이면 신령이 묘를 깨고 나타나 도래솔 밑에서 시원한 바람을 쐬고 다시 묘 안으로 들어가는 영혼세계의 풍습을 상상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밤 중에 묘지 주변 접근을 꺼려한다. 죽은 것과는 일단 격리해서 살아가는 것이 편하다는 무척 인간적인 일반의식 때문일 것이다. 소나무나 해송은 죽음의 세계까지도 장식해 주는 조경수목일 수 있다.

### 강릉의 해송숲

강릉 일대에 있어서 한때 바다 모래 언덕이 바람을 타고 내륙으



▲해송의 도래솔, 전북 고창, 1992. 9. 25.



로 이동해 오는 바람에 그 사구(砂丘)를 막느라 애를 쓴 일이 있다. 모래 이동 방지로 해송을 많이 심었고 그 효과를 보아 이제 주거환경에 안도의 숨을 돌리고 있다. 지난날 학자들의 조사보고에 의하면 강릉은 원래 해송이 분포하지 않았던 곳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사람이 심어준 것이다. 동해안에 있어서 해송의 북쪽 한계선은 울진이고 그보다 북쪽의 것은 사람의 힘에 의한 것이다.

강릉 시내 낮은 곳에 해송숲이 곳곳에 나타나고 그 자람이 건강한 편이다. 사구 이동 방지 목적으로 심어준 해송숲은 지금 잘 자라고 있고 흰 모래사장과 어울려 좋은 경관을 만들어 내고 있다. 다른 나무로서는 그곳에 좋은 숲을 만들어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 이리 익산의 해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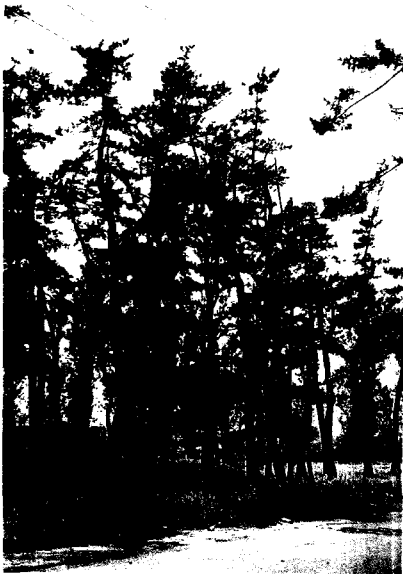
해송은 해안에 따라 분포한다 했으나 분포상 이상한 지역이 있다. 그것은 전라북도 이리, 익산 쪽인데 이곳은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자생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군데군데 자라고 있다. 어떻게 해서 것처럼 내륙에 까지 침입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

다. 익산시에 가까운 곳에 미륵산이 있고 그 산록에 소위 익산 미륵사지가 있는데 구전에 의하면 신라시대에는 배가 이곳까지 들어왔다는 말이 있다. 그 진위는 알 수 없으나 이곳까지가 해양성의 환경 아래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송의 분포는 그 이론적 근거를 찾게 된다.

전주시내 삼천동에 큰 해송 한 그루가 있고 천연기념물 제355호로 지정되고 있는데 이것이 자연생이나 아니면 인공으로 심어준 것이냐 하는 논의가 있을 법하다. 묘지 주변에 있는 것을 보면 심어주었다는 가능성을 높여준다. 수형이 매우 아름다운 편이다.

이곳에 익산시 신작리에 있는 해송의 노거목을 사진으로 보인다. 이 나무는 전북과 충남의 경계지대이고 이웃에 강경시가 있다. 해안에서 무척 떨어진 곳인데 큰 노거목이 있다. 수령 350년으로 추정되는 천연기념물 제188호의 나무이다. 음력 설달 말경이면 충청남도도 전라북도에도 사는 이 근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나무에 치성을 들며 평화와 농경의 풍작을 기원했다. 도의 경계는 사람이 만든 것이지 이 나무는 그것을 초월해서 주변 주민들을 보호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 나무는 가지가 아래로 길게 처져서 처진 해송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매우 우아하게 보인다. 이 나무 줄기에는 큰 혹이 있어서 관심거리로 되고 있다.



▲해송의 방풍·방사림, 강릉, 1987. 9. 12.

▼해송의 노거목, 전북 익산 신작리 천연기념물 제188호, 1990. 1. 7.

